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공부하는 곳은 바탄반도의 수빅에 위치해있어요. SLC 건물의 규모는 큰 5층 빌딩에 공부하는 곳과 기숙사가 함께 있어요. 사실 저희 기수 때는 누수로 인해 원래의 SLC 건물에서 지내다가 다른 숙소로 이사를 가기는 했었는데, 이전에도 넓고 쾌적했으나, 다음에 가시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되어서 건물이 깔끔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어딜가든 넓직한 수영장이 있어서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하루에 총 8시간을 해요. 1대1 수업 4시간, 그룹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대1 수업은 vocabulary와 reading 수업이고, 그룹수업은 두시간은 토익 스피킹, 그리고 나머지 두 시간은 각각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문법을 포함해 전반적인 영어를 배우는 수업으로 이루어져요. 선생님분들의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유쾌하시고, 영어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세요. 저도 처음에 8시간 수업이라 지레 겁먹기도 했었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어요.</p> <p>하나 팀을 드리자면, 처음 가자마자 보는 분반 테스트를 잘 보시면 더욱 좋아요. 그룹 수업의 분위기가 팀 구성원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모든</p>

	<p>선생님들이 유능하시지만, 이 시험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수록 그룹이나 1대1 선생님들 매치에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 같아요.</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우선 첫주말에는 랜덤으로 조를 추첨해 선생님 한분과 같이 수빅 다운타운 투어를 같이해요. 이 때 이동하면서 필리핀만의 교통수단을 타보기도 하고, 시장이나 큰 마트를 가보고, 한달동안 살면서 필요할 핸드폰 유심을 구매하고 환전도 같이 해요.</p> <p>두번째 주에는 공항 근처에 있는 Clark SM mall에서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건물이 정말 크고,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수빅에는 없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두번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쇼핑을 크게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날 100불을 넘게 쓰고 왔어요.</p> <p>세번째 주에는 White Corals Beach Resort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저는 물을 무서워서 제대로 놀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비가 거세게 왔어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p> <p>네번째 주에는 Mt. Samat에 다녀왔어요. 산이긴하지만 박물관이나 높은 탑도 있고 잘 꾸며져 있어서 생각보다 볼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게 아니라 상품을 걸고 팀마다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들 처음에는 투덜거리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의욕이 생기고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나름 재밌었어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였어서 시도때도 없이 비가 내렸어요. 햇볕이 내리쬐릴 때는 더울 수 있지만, 비가 오고 에어컨이 계속 가동되는 실내에 있다보면 추울 수 있어서 얇은 겉옷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게 좋아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저희는 다행히 큰 사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여자들은 특히 더) 밤 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시설은 원래 SLC 건물이나 새로 이동했던 건물이나 넓찍하니 좋았고,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조용한편이나 주말에는 조금 시끌시끌 할 수 있어요. 평일에는 10시, 다음날에 수업이 없는 날에는 통금이 12시고 직접 buddy teacher들이 기숙사에 들어오셔서 확인하고 공지사항도 알려주세요.</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점심은 주로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저녁은 대부분이 외식을 한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은 친절하신 필리핀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한식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맛있어요. 가끔씩 떡볶이에 보쌈이나 바비큐 구이 같은 것도 나온답니다.</p> <p>외식은 주로 Harbor Point, SM mall, Subic Bay 근처에서 해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 맛있게 먹고 짜거나 단 음식을 잘 먹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랐던건 필리핀 피자라 라자냐가 정말 맛있어요. 식당 한군데만 딱 추천해드린다면, Xtremely Xpresso가 제일 좋았어요! 기숙사에서 배달음식도 시켜 먹을 수</p>

교통	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Jolibee와 Greenwich가 있어요.
	<p> 시내교통 관련</p> <p> 수빅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크게 트라이시클, 지프니, 택시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수빅투어 할때를 제외하고는 다운타운에 나가실 때마다 친구분들과 택시를 타게 될거예요. 여러명이 돈을 나누어 내니까 아무리 많이 내도 한번에 1100원을 넘지 않아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권, 유학허가증	685,000	
보험료	33,810	
한달 생활비	약 600,000	총 500달러
합계	1,318,810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얇은 겂옷,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마르는 스포츠 기능성 티 혹은 래쉬가드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께 편지랑 선물을 드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필리핀에는 줄있는 편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지와 한국적인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파견하기 전에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께서 미국달러 500불이</p>
--

면 한달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쇼핑이랑 외식을 자주해서 그런지 조금 부족했었어요. 한 600달러면 어떤 분이든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최종합격 결과가 난 후에, 해외에서 한달을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출국을 했습니다. 약 세시간 정도 취침 후 피곤한 상태에서 바로 반배치 시험을 보았고, 수빅투어를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첫날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안고 필리핀에 갔었지만, 막상 8시간의 시간표를 확인하니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두려움은 잠깐이었고, 수업이 시작하자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보다 회화연습에 초점을 두고 단기어학연수에 지원했었습니다.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피킹에 있어서 자신감도 많이 상승하고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육적인 측면 외에도 다들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수빅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주말에 했던 액티비티들도 색다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 주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Mt. Samat



White Corals Beach Resort



Yacht tour



Going out with our teacher



Going out with our teacher



White Corals Beach Resort